

# 월 1회 투여... '글로벌 비만치료제' 경쟁 치열

화이자, '월간 제형'으로 추격 속도 대응 제약 '큐어', 올해 첫 투약 추진 유한양행-인벤티지랩, 협업 연구 동국제약, 마이크로스피어 활용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후발 주자들의 반격이 치열하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양분하고 있는 주 1회 투여 주사제 시장에 화이자가 '월 1회 투여'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당뇨병학회의 제86회 과학회의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베로베나타이드 임상 2b상(VESPER-1, 2, 3) 상제 결과를 발표했다.

베로베나타이드는 비만치료제 후보 물질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투약 편의성의 극대화다. 화이자해는 해당 약물을 주 1회 투여하며 용량을 증량한 뒤, 월 1회 유지 요법으로 전환하는 임상 2b상 'VESPER-3'을 설계했다.

VESPER-3 결과, 주당 2.4mg의 베로베나타이드를 투여받다 투약 빈도를 줄인 당뇨가 없는 비만 환자에서 위약 효과를



비만도 주사로 관리하는 가운데, 환자 편의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제외하고 15.9%의 체중 감량 효과가 유지됐다. 특히 치료 32주 차까지 체중 감소가 멈추는 '정체기'가 관찰되지 않아 장기 투여 시 추가 감량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상에 참여한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 존 B. 부스 교수는 "비만 관리는 평생 지속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치료 유지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간 투여에서 월간 투여로 전환한 후에도 의미 있는 감량 효과와 우수한 내약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만치료제 개발의 무게 중심이 '월간 제형'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대응 제약은 지난달 바이오 스타트업 티온랩테라퓨틱스와 손잡고 기존 위고비 성분 세마글루타이드를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착수했다. 양사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대응 제약의 '큐어'로 미세 약물 입자(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고 티온랩테라퓨틱스의 '뉴젝트스피어' 기술로 초기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한다. 약물이 초기에 한 번에 방출되는 부작용을 막고 한 달간 일정하게 효능이 유지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안에 첫 환자 투약을 추진해 제형 전환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한양행의 비만치료제 개발 전략도 기존 GLP-1 주사제의 미충족 수요를 정조준한다.

특히 장기 투여의 불편함과 환자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텍 인벤티지랩과 협업하고 있다. 양사는 비만·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TVL3021', 'TVL3024' 등을 구축했다. 위고비 성분을 처방한 IVL3021은 비임상 독성을 진행 중이며 마운자로 성분을 기반으로 한 IVL3024에 대해서는 제제 연구를 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자체 구축한 마이크로스피어 플랫폼을 활용하며 추격한다. 전립선암 치료제 '로렐린데포' 등에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방향 장기지속형 약물을 개발해 온 데 이어 비만 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한다. 비만 후보물질 'DKF-MB501'은 한 번 투약으로 3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다.

국내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장기지속형 기술의 가치가 증명됨과 동시에 다양한 파트너십이 활발해지는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LG생활건강 '피지오겔' 자외선 차단·모공 관리 여름행사로 합리적 준비

오는 14일까지 쿠팡 썸머뷰티 행사



LG생활건강의 더마 뷰티 브랜드 피지오겔은 여름을 맞아 피부 부과학노하우를 집약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무더위와 자외선으로 손상

될 수 있는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오는 14일까지 쿠팡 썸머뷰티 행사를 통해 자외선 차단제 '데일리 모이스처 데라피어드밴스드 선크림 (30ml)' (사진)을 1+1 구성으로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피지오겔만의 바이오미믹 기술을 적용해 피부 장벽을 보호해 준다.

이와 함께 피지오겔은 브랜드 인기 제품들을 내놓는다. 모공 관리 효과를 갖춘 레드수딩 시카베런스포어솔루션 선크림 (30ml), 피지오겔의 피부진정 특화 성분을 함유한 저자극 선크어 레드수딩 AIUV 어드밴스드 선크림 (40ml) 등을 혜택가에 구매할 수 있다.

피지오겔 관계자는 "피부 장벽 강화와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고려한 피지오겔의 선크어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다양한 제품들로 온 가족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더마 선크어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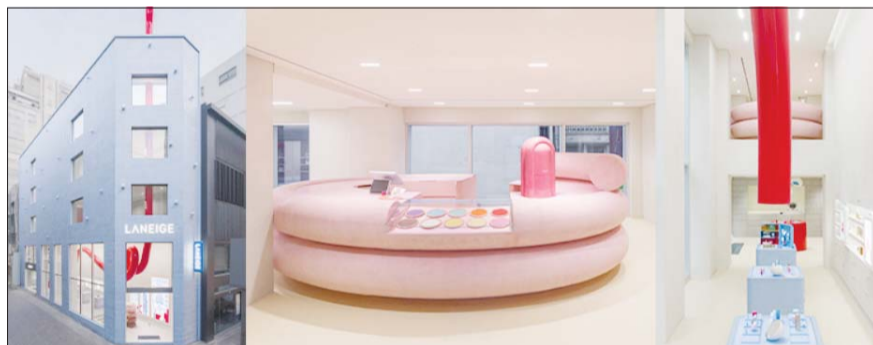
## "라네즈 서울"서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제품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 명동 매장 오픈 스킨케어·첨단기술 주제로 꾸며 개인 맞춤형 립 슬리핑 마스크 제작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의 브랜드 정체성과 뷰티 기술을 집약한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경험 기반의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명동에서 '라네즈 서울'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라네즈 서울은 브랜드 최초 글로벌 플래그십 매장이며 라네즈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 '새로운 스킨케어'와 '첨단 기술'을 주제로 꾸며진 공간이다. 뷰티 과학을 연구개발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



'라네즈 서울' 전경. /아모레퍼시픽

한 뷰티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스포크 립 슬리핑 마스크 스월'의 경우 개인 맞춤형 립 슬리핑 마스크를 제작해 준다. 온도 제어 기술, 노즐 엔지니어

링 등을 통해 최대 45가지 조합의 향을 구현할 수 있다.

'비스포크 네오' 서비스에서는 라네즈 대표 제품인 쿠션에 150가지 색상 데이터를 적용한다. 1:1 컬러 분석으로 최적의

색상을 찾고, 아모레퍼시픽이 특허 출원한 제조 로봇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완성한다.

'비스포크 크림 스킨'은 인공지능(AI) 기반 스킨케어다. 피부 상태에 따라 25가지 솔루션을 제안하며 현장에서 약 20분 만에 고객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설계한다.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유닛 최필경 부사장은 "라네즈 서울은 뷰티, 기술, 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라네즈 비전을 담은 공간"이라며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발견함으로써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단 하나의 제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CJ바사, '장 내 미생물' 연구·사업 확장

IHMC 서 포스터·세션 발표 진행

CJ바이오사이언스가 장 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성과부터 웰니스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개발까지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진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IHMC 2026)'에서 포스터 발표 3건과 세션 발표 2건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학계와 장 내 미생물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동시에 산업계와는 웰니스 사업 기회를 탐색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장 내 생태계를 모사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미생물 이용 탄수화물(MAC)'을 연구해 왔다. 특히 4종의 MAC 복합 포물리를 성인 210명에게 적용한 결과, 개인별 장(腸) 유

행에 따른 맞춤형 섭취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또 실험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임상 결과의 높은 유사성을 입증해 장 모사 시스템의 유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더해 개인 맞춤형 식이요법 등을 고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4분기 기존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알려진 '체중 감량 이후 요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장 내 미생물과 병리적 연관성이 높은 염증성 장질환(IBD) 관련 치료제도 개발한다.

회사 핵심 파이프라인 'CJRB-201'의 독창적인 항염증 기전을 규명했고 효능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 GC녹십자, 규제업무에 '레귤레이터' 도입

FDA·사내 허가문서 데이터셋 활용

GC녹십자는 인공지능 챗봇 '레귤레이터'를 개발해 의약품 규제 업무에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레귤레이터는 미국 식품의약품(FDA) 가이드라인과 GC녹십자의 사내 허가 문서를 데이터셋으로 활용한다. 허가 변경 분석, 유사 허가 사례 탐색, 규제 업무 방향성 제시 등의 기능을 갖췄다.

문서 검토도 가능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방대한 가이드라인과 내부 문서를 직접 살펴보고 허가 변경 근거를 찾는 데 수 시간이 소요됐지만 레귤레이터는 해당 업무를 30분 이내로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GC녹십자는 정보 보안은 강화하고 신뢰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부

데이터 접근시 보안 환경에서 운영하고 구축된 데이터셋 내에서만 답변을 생성하도록 설계했다. 외부 데이터 접근은 차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지적되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처럼 국내 제약 업계에서 규제 업무 중 '허가 변경 관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한 사례는 GC녹십자가 처음이다. 레귤레이터의 영문 명칭 'RegulAItor'에 대한 상표 출원도 완료하는 등 GC녹십자는 독자 구축한 브랜드의 자산 가치도 확보했다.

GC녹십자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레귤레이터 개발은 특정 부서에 국한돼 있던 허가 경험과 지식을 조직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새로운 미세 거품제형 고기능성 영양 담아

신제품 '마데카 크림 인 버블 세럼'



동국제약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마데카 크림 인 버블 세럼' (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기능성 크림의 영양 성분을 담아내면서도 세럼의 산뜻한 사용감을 갖춘 스킨케어다. 쏘쏘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세 거품 제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동국제약 핵심 성분 센텔라아시타카 정량추출물, 피부 보습을 위한 판테놀 R X, 병풍을 활용한 피부진정 성분 등을 함유한다. 여기에 '3중 안정화 에어 유화 시스템' 기술을 적용해 유효 성분 흡수력까지 높인 것이다.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아침·저녁 세안 후 토너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면 된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로 여러 차례 덧발라 피부 수분 장벽도 관리할 수 있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신개념 버블의 탄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며 "특히 메이크업 전, 피부 속 보습을 채워 화장 잘 먹는 피부를 연출하고 피부 겉에서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